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권 제1호
1998년 6월 pp.33~56

〔특집: 제2주제〕

서비스 경제화와 공간의 변용

Service Economies and the Spatial Transformation

이 희 연*

요약문

본 연구는 서비스 경제화 추세가 진전되면서 공간에 어떠한 변용을 가져오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패턴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별적인 서비스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입지는 공간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15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업종은 생산활동과 연계가 깊은 생산자서비스업으로, 이 업종은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사가능이 주로 집적되어 있는 핵심지역이 기술, 정보, 지식 집약적인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생산자서비스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서울을 세계 대도시들 속에서 경쟁력있는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고차적 생산자서비스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른 지역들과의 성장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서비스경제화, 공간구조, 생산자서비스업, 성장격차

1. 서론

경제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간주되어온 제조업의 성장과 고용이 점차 둔화되면서 생산과 고용, 그리고 국제교역에서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서비스 경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이미 1970년대부터 서비스산업은 총고용의 60-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롭게 창출되는 고용기회의 대부분도 서비스산업에서 파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가들의 경우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와 기업을 둘러싼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모든 산업활동에서 해외교류가 증가하면서 해외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기업들의 해외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가의 기업들은 부품, 자금, 정보, 기술의 구입과 확보를 위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경쟁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변동과정에 적응하기 위해 더욱 더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고차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교수

보면 총취업자의 64%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의 50%를 넘고 있어 서비스 경제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제조업의 부가가치나 고용이 선진국들 처럼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경제화와 관련되어 최근에 들어와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내적으로는 서비스산업의 고용확대와 서비스업의 임금 상승이 경제 전체로 파급되어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서비스 부문의 개방화와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고, 정보기술과 통신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직종이 창출되면서 서비스업의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경제화 추세를 산업구조와 무역구조의 변화를 통해 간략히 살펴본 후 그 요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을 고찰하고, 서비스업이 성장함에 따라 공간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서비스 수요에 대한 차별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생산활동과 연계가 깊은 생산자서비스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입지와 공간적 분업화 현상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서비스 경제화가 활발하게 진전되어감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역간 성장격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려고 한다.

2. 서비스 경제화 추세

1) 산업구조의 변화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발전단계의 성숙화와 더불어 생산과 고용부문에서 서비스 비중이 증가하는 이른바 서비스 경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생산과 고용 등 경제활동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서비스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서비스 경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1985년 29.3%에서 1995년 26.8%로 감소한 반면에 서비스산업은 같은 기간동안 46.5%에서 50.2%로 증가하였다. 특히 서비스 부문중에서도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등의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진다(표 1 참조). 따라서 우

표 1. 산업별 국내총생산의 비중 변화, 1975-1995년

(단위: %)

연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서비스업					계
		광업	제조업	계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사업	개인,사회서비스	기타	
1975	25.0	1.4	26.1	27.5	1.2	4.8	17.0	5.9	6.6	3.2	8.4	41.1
1980	14.9	1.5	28.2	29.7	2.0	8.4	12.7	7.6	11.0	3.3	9.6	44.2
1985	12.5	1.1	29.3	30.4	3.0	7.6	13.6	7.3	11.5	3.4	10.7	46.5
1990	8.7	0.6	29.2	29.8	2.2	11.5	12.9	6.7	14.9	3.5	9.8	47.8
1995	6.5	0.3	26.8	27.1	2.3	13.5	11.5	7.3	17.1	4.1	10.6	50.6

주: 경상가격기준임.

자료: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해당연도.

리나라에서도 서비스 산업이 주요 산업의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구조가 선진화되어갈수록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제조업의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고, 제조업내에서 지식집약적 또는 생산지원적인 전문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중에도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수송장비, 전기전자, 정밀기계부문 등은 이들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별로 GDP의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1985 - 90년동안 전산업은 1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금융, 보험과 부동산, 사업서비스는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1990 - 95년에도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고용측면을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광공업과 같은 1,2차 산업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3차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5-95년 동안의 1차와 2차산업의 비중은 각각 25.4%, 24.0%에서 12.5%, 23.6%로 감소하였고 3차산업은 같은 기간중에 50%에서 64%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2 참조). 이렇게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고용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유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높은 소득탄력성으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고, 생산과 경영조직에서 중간투입재로서의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한 수요의 증대, 그리고 지식집약적인 각종 정보서비스업의 발달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경제화란 단순히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전문화 등등 서비스 경제전반에 걸친 역할의 증대를 의미한다.

한편, 직업별 고용구조에서도 서비스 경제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등 사무관련활동의 비중은 지난 15년 동안 큰 폭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의 경우 1980년 불과 5%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95년에는 16%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농림어업직의 비중은 같은 기간중에 34%에서 12%로 크게 떨어졌으며, 생산관련직의 성장도 1988년 부터는 둔화되고 있다(표 3 참조).

2) 무역구조의 변화

(1) 서비스 교역의 특성과 현황

서비스 교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부터이며, 특히, 서비스 무역이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상품교역의 25%에 이르

표 2.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 1975-95년

연도	총취업자수(천명)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도소매, 음식업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	사회, 개인서비스
1975	11,692	50.5	18.1	32.1	0.3	3.8	13.4	3.4	1.2	10.1
1980	13,683	37.8	22.8	39.4	0.3	5.2	16.2	4.4	2.3	11.1
1985	14,970	25.4	24.0	50.4	0.3	6.1	25.9	4.7	5.1	10.1
1990	18,085	18.5	27.9	53.6	0.3	7.6	24.9	4.7	6.5	10.2
1995	20,377	12.5	23.6	64.0	0.3	9.3	26.3	6.1	10.2	1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해당연도.

표 3. 직업별 고용구조의 변화, 1975-95년

연도	총취업자수(천명)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 어업직(%)	생산관련직 (%)
1975	9,617	4.8	6.0	18.8	50.2	20.2
1980	13,683	5.3	9.3	22.4	34.0	29.0
1985	14,970	7.3	11.5	26.3	24.6	30.3
1990	18,085	8.7	13.0	25.7	17.8	34.8
1995	20,377	16.4	12.3	21.9	12.3	37.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해당연도.

게 됨에 따라 서비스 부문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1986년 우르과이 라운드 다자간 협상이후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서비스 무역의 개방화에 따라 서비스 교역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교역은 상품교역에 비하면 다소 떨어지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비스 부문의 대외거래도 활발하여져 1993년에는 서비스 교역규모가 총 무역규모의 약 25%를 넘게 되었으며, GDP규모의 약 1/7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 교역은 흔히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수출국에서나 수입국에서 모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서비스가 무형재이고 저장이 용이하지 않으며, 서비스 공급과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서비스의 공급자와 사용자는 근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재화교역에 비해 비교역적인 성격을 가지며 보다 제한적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서비스의 국제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 기술, 노동 등의 생산요소의 국가간 직접적인 이동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생산요소의 이동은 상품이동보다 훨씬 많은 제약을 받으며 이를 규제하려는 요인들에 의해 장애를 받게 된다.

서비스 교역은 생산자 혹은 소비자가 이동하는가에 따라 네가지 형태로 분류된다(Riddle, 1987). 첫번째 유형은 재화교역과 같은 국경무역형으로, 보험, 금융서비스 등과 같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자국내에 위치하면서 통신수단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두번째 유형은 현지무역형으로, 소비자만 이동하는 것이다. 즉 공급자는 자국내에 위치하면서 소비자가 공급자의 국내로 이동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로 관광여행,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이 이에 속한다. 세번째 유형은 요소수익 무역형으로, 서비스의 소비국에서 서비스 생산을 위해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건설, 외국인 자본에 의한 금융서비스 등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네번째 유형은 제3국 무역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 3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서비스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경제발전과 더불어 고용, 부가가치 면에서 서비스 경제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 교역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Conner, 1987). GATT의 추계에 따르면 1988년도 서비스 교역은 6000억달러로 상품교역액의 20%에 달하였으며, 1993년에는 1조달러를 넘어섰으며 세계무역의 22%를 서비스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재화의 무역수지가 서비스 수지(무역외 수지)의 약 3.5배에 달하고 있

표 4. 세계 서비스 수출의 성장과 구성비 추세, 1992년

(단위: 10억달러)

연도	재화	서비스(소계)	화물	기타운수	여행	기타민간서비스	기타정부서비스
1975	1792.0	401.4	57.4	72.6	107.8	128.5	35.2
1988	2645.5	618.1	79.4	101.9	186.8	203.3	46.6
1990	3263.3	818.3	96.9	133.3	246.3	287.9	54.0
1992	3585.5	959.9	106.5	146.0	282.3	370.8	54.2

자료: IMF, 1993,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Yearbook..

표 5.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서비스 부문별 수지현황, 1992

(단위: 10억달러)

구분	국가	재화	서비스	화물 운수	기타운수	여행	기타민간서비스	기타정부서비스
수출	선진국	2593.1	753.9	82.2	112.6	212.2	302.6	44.3
	개발도상국	992.4	204.4	23.3	33.3	70.2	68.2	8.4
수입	선진국	2549.4	733.3	92.9	116.3	265.1	265.1	30.4
	개발도상국	1003.9	243.6	58.5	32.4	73.4	73.4	25.0

자료: IMF, 1993,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Yearbook..

으나 성장률에 있어서는 서비스 수지가 무역수지를 능가하고 있다. 서비스수출 구성부문을 보면 생산자서비스가 포함된 기타 민간서비스부문이 3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행, 기타운수, 화물운수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수출의 성장에 있어서도 생산자서비스 교역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표 4 참조).

한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서비스 교역을 살펴보면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화교역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72.3%인데 비해 서비스 교역에서는 7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 교역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서비스 수지는 200억 달러규모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개발도상국은 40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출부문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경우 생산자서비스의 수출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는데 비해 개발도상국은 여행부문에서 다소 수출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의 경우 상품교역과 서비스 교역의 비율은 1:4 정도이나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등은 서비스 교역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체로 상품교역과 서비스 교역에서 주요 OECD국가들이 차지하는 순위는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다(표 6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교역은 상품교역에 비해 훨씬 미약하였다. 서비스 교역의 규모는 1975년 20.7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상당히 증가하여 1993년에는 402.7억달러로 약 20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상품교역에 대한 서비스 교역의 비중도 1975년 16.8%에서 1995년 26.3%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7 참조).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품교역이 세계 12위를 기록하는데 비해 서비스 교역은 19위 수준

표 6. 서비스 교역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 1992년

국가명	국제간 서비스 교역		국내 총수출중 서비스 산업의 수출비중(%)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사업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상업서비스 수출규모(순위)	세계적 점유 비중(%)		
미국	119.1 (1)	1.7	24.7	29.0
프랑스	81.9 (2)	10.1	29.5	48.3
영국	55.3 (3)	6.8	22.3	44.2
독일	51.8 (4)	6.4	13.1	42.0
일본	40.8 (5)	5.0	13.0	44.7
오스트리아	22.6 (10)	2.8	11.9	39.0
캐나다	15.1 (12)	1.9	14.0	39.1
스웨덴	13.7 (15)	1.7	21.7	42.3

자료: OECD, Element of a Conceptual Framework for Trade in Services, OECD Report, 1993.

표 7.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의 성장추이, 1975-95년

(단위: 억불, %)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3	1995
서비스 수출	9.9	51.7	66.3	150.6	198.3	296.1
서비스 수입	10.8	55.8	84.2	156.6	215.4	345.4
서비스 교역	20.7	107.5	150.5	307.2	402.7	641.5
서비스.상품교역 비중(%)	16.8	27.0	21.9	22.5	26.2	36.3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통계연보, 해당연도.

에 머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수입 항목을 보면 해외여행과 운수 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수출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화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 교역은 우리 경제의 개방화에 따라 거래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거래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교역은 1990년대 들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운항 및 항만 경비, 용선료의 증가, 대외부채의 증가로 인한 이자 지급규모의 확대,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의 여행경비의 증대,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기술사용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기술용역대가의 증가와 국내기업의 해외생산 및 영업활동의 증대로 경비증가와 기타 전문 서비스료의 지급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성일석, 1995).

(2) 서비스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최근에 들어와 서비스 부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 대한 FDI가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제조업에서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져 어느 정도의 규모경제가 나타나면 현지 고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에 현지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표 8. 선진국가들의 부문별 해외직접투자의 추이

(단위: %)

국가	연도	1차산업	제조업	서비스	국가	연도	1차산업	제조업	서비스
미국	1976	12.7	47.6	39.7	일본	1975	28.1	32.4	39.5
	1980	12.1	49.0	38.9		1980	21.9	34.4	43.7
	1990	8.3	44.3	47.4		1991	5.7	26.7	67.6
영국	1974	2.3	50.4	26.6	프랑스	1975	22.1	38.2	39.7
	1981	27.9	35.9	36.2		1980	15.0	41.2	43.8
	1987	27	34.4	36.8		1989	13.4	39.9	46.7
독일	1976	4.5	48.3	47.2	이탈리아	1975	31.0	28.9	40.1
	1980	4.4	47.6	48.0		1980	19.2	50.2	30.6
	1990	2.3	39.1	58.6		1990	8.2	33.6	58.2
스페인	1975	13.1	37.4	49.5	오스트레일리아	1975	25.6	4.09	33.4
	1980	11.2	40.5	48.3		1980	19.6	33.3	44.9
	1990	8.9	18.7	72.4		1990	14.5	28.2	57.3
덴마크	1982	0.4	43.1	56.5	포르투갈	1985	1.8	24.4	73.8
	1990	0.8	25.4	73.8		1988	1.3	21.2	77.5

자료: UN Transnational Cooperations and Management Division, 1993, Table 18.

둘째, 상품교역의 경우 관세나 쿼터제의 무역장벽을 통해 자국내 기업을 보호하는데 비해 서비스 교역의 경우 이런 형태의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지금까지 서비스 교역의 경우 주로 설립권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전략을 도입해왔다. 그러나 상품교역의 자유화와 더불어 서비스의 개방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규제가 자유화되자 서비스 부문에 대한 FDI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셋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시장에서 마케팅, 유통 등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다변화되면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Daniels, 1996).

1975-90년 동안 다국적기업들의 부문별FDI의 규모를 보면 제조업의 비중은 줄어드는데 비해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등은 1980년 후반 이후 서비스 부문에 대한 해외투자가 상당히 증가하였다(표 8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제조업 위주였었으나 1993년 이후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개방확대, 국내 서비스 내수시장의 확대에 따라 1994년부터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앞서고 있다. 국내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부문을 보면 보험, 광고, 여행, 유통, 컴퓨터 정보처리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있다.

3. 서비스 경제화 요인에 대한 관점들

1) 신고전경제학적 관점

서비스 경제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요인에 대한 신고전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설명은 크게두 그룹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먼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경제발전 단계설을 들 수 있다. 경제발전 단계설은 크게 Clark(1940), Fisher(1935)의 경제발전 3단계설; Bell(1973)의 후기산업사회론; Blackaby (1978)의 탈공업화이론; Porat(1977), Ochel & Wegner(1987), Hepworth(1989)의 정보사회론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들 주장들은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지만 그 핵

심을 보면 경제의 중심은 발전단계에 따라서 1차산업에서 2차, 그리고 3차 산업으로 옮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설 이론들은 서비스 산업이 고용면이나 생산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부문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적인 면을 기술하지만 왜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서비스산업을 3차산업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최근에 오면서 1차와 2차 산업내에서도 3차산업의 성질을 가진 활동이 혼재되어 있으며, 정보통신과 컴퓨터의 기술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간에 상호의존도를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 서비스산업의 상대적 비중 증가와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 및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서비스경제화가 이루어지는 요인에 대해 서비스가격의 상대적 상승에 대해 초점이 모아지게 되었다(Baumol, 1967; Fuchs, 1968). 생산성 격차 이론에 따르면 재화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으나 임금공동화 현상으로 서비스 부문에도 높은 임금 상승이 파급된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상승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의 상대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Kravis, Heston, & Summers, 1983). 즉, 자본과 노동의 총생산성에서 노동력 증대보다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Bhagwati, 1984). 또한 이들 연구에 따르면 경제발전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생산자서비스와 소득탄력성이 높은 소비자서비스 수요는 상대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반면에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축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본/노동 비율이 상승하게 되므로 자본집약적이고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제조업의 실질생산이 서비스산업의 실질생산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증가와 상대적인 공급감소로 인해 서비스의 상대적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게 되며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높아지게 되고 상대적 고용비중의 증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분업화와 전문화 추세가 나타나면서 기업내부에서 해결하던 서비스활동이 외부화하게 되어, 동일한 생산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전에는 제조업 생산으로 측정되던 것이 외부화 이후로는 서비스업으로 측정되므로 서비스산업의 상대적 비중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비스 경제화에 대한 이론들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재화에 대한 서비스의 상대적 가격이 다르다는데 초점을 두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서비스 상대가격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2) 정치경제학적 관점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대한 신고전경제학적 관점은 이론적인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많은 비평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비평들중에 가장 대표적인 관점은 후기 자본주의 또는 후기 산업사회에 대한 막시스트적 견해에 토대를 둔 정치경제학적 관점이다. 이들은 서비스 경제화는 매우 급진적인 산업구조적 변화라기 보다는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되어나가는 연속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서비스 기능의 성장은 과거 제조업의 성장패턴을 만들어낸 것과 같은 과정이며, 자본주의 경쟁하에서 자본이 새로운 형태의 생산을 찾는 과정에서 서비스

기능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Mandel, 1975; Allen, 1988). 따라서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용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富의 창출은 재화생산이라고 보고 있다.

서비스 성장에 대한 인식은 과거 막시스트가 주장하던 물질생산(제조업 중심), 불루 칼러 노동력 중심의 사고에 기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활동을 비생산적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Sayer, 1985; Winckler, 1990; Sayer & Walker, 1992). 서비스 성장은 대량생산에 따른 수익률이 쇠퇴함에 따라 새로운 이윤 투자를 찾는 돌파구로 나타난 것이며, 따라서 서비스 성장은 전통적 관점에서 보는 수요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와는 달리, 재화생산과 연관된 노동의 분화이며 재화생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생산기초적 견해(production-based view)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자본주의가 화이트 칼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다양한 정보기술과 사업서비스가 행해지지만 이러한 현상이 산업자본주의로부터 후기산업사회로의 변화라고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오늘날의 서비스 경제화는 자본주의가 노동비용과 재화의 시장가격간의 차이인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후기 자본주의의 위기는 재화생산에서의 잉여자본을 고용할 기회의 만성적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20세기 후반 치열한 국제경쟁과 투자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위협을 받게 되면서 자본은 보다 이윤성이 높고 단기적인 정보교환, 금융투자, 소비활동등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서비스 성장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특히 소득과 富, 성(gender)과 계급간의 갈등 등 등의 분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구조주의자들에게 상당히 부각되었으며(Sayer, 1985; Urry, 1990; Allen, 1992), 이들 학자들이 서비스의 역할을 보는 견해는 전통적 관점에 비해 상당히 포괄적이다. 이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산업부문(sector)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경제구조의 변화속에서 더욱 심화되어 가는 노동의 분업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연관시켜 보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생산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자본의 행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 관점에서 서비스 자체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보는 반면에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제조업 생산의 적응과정이라는 틀속에서 서비스 성장을 연계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견해의 차이는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정보통신이나 극소전자기술의 혁신을 보는 관점도 다르다. 전통적 접근에서는 이러한 기술혁신이 서비스발달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정치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새로운 기술혁신은 자본투자에 대한 신속한 회전을 얻기 위해 서비스 기능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는 자본의 재구조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4. 생산자서비스업의 성장에 따른 공간의 변용

1) 생산자서비스업의 성장과 공간적 분포

아직까지 서비스산업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도 없으며, 흔히 농림수산업과 광업,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을 제3차산업으로 분류하고 이

표 9. 서비스업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성장

업 종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평균증가율(%)		1995년 사업체수(개)	연평균증가율(%)		1995년 종사자수(명)
	1981-86	1986-95		1981-86	1986-95	
생산자서비스업	9.8	9.3	180,008	8.9	10.3	1,480,367
유통서비스업	8.9	15.5	375,308	8.7	7.2	1,709,358
소비자서비스업	5.7	4.2	1,812,979	7.0	4.8	5,070,370
전체서비스업	6.1	5.8	2,368,195	7.5	6.1	8,260,095

주: 생산자서비스업: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포함
유통서비스업:전기,가스,수도,도매, 운수,창고,통신업 포함
소비자서비스업:소매,숙박,음식, 교육,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 개인서비스 포함
자료: 통계청, 1995,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전국편); 경제기획원, 1981,1986, 1991,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를 서비스 산업이라고 일컫고 있다. 이런 경우 서비스산업에 속한 업종이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입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까지는 주로 생산에 투입된 원료의 종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류된 SIC(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체계에 따라서 서비스산업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서비스활동의 다양성을 반영해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2년 이후 우리나라의 표준산업체계분류가 바뀌면서 특히 서비스산업 부문의 분류가 다소 세분화되어 이질적인 서비스업종의 특색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대분류상에서 11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 서비스산업을 어떠한 기준을 토대로 하여 구분하는가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는 취급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재화관련서비스, 정보처리서비스, 인적지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제공주체에 따라서 공공/사적 서비스로 구분되기도 하고, 경제에 대한 서비스 기능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는 기반/비기반 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수요자의 유형에 따라서는 생산자/소비자 서비스로 구분되기도 한다(Healy & Ilbery, 1990).

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업종들 가운데 최근에 들어와 급속히 성장하면서 많은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생산자서비스업종이다. 생산자서비스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기업에 중간서비스나 중간수요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생산성 향상, 신제품개발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생산과정의 다양한 단계에 투입되는 전문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종이다. 특히 정보, 기술변화, 지식의 흐름을 생산으로 이어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생산자서비스업은 최근에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기술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흔히 생산자서비스업이란 금융 및 보험 서비스(KSIC J)와 부동산, 임대 및 법무, 회계, 광고, 경영상담, 정보처리, 기술상담,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서비스(KSIC K)를 일컫는다.

(1) 생산자서비스업의 성장

서비스 경제화가 진전된다고 해서 서비스 모든 부문에서 고르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부문내에서도 차별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용자수의 증가를 보면 생산자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가가 가장 두드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6-95년 동안 생산자서비스업은 연평균 1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가는 연평균 4.8%에 불가하고 있다

생산자서비스업의 성장 원인은 주로 급속한 기업에서의 서비스 수요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규모가 증가되고 기업의 생산과 분배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생산과 경영조직을 상호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요소의 투입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전문서비스 기능이 점차 확대된다(Marshall, 1994). 한편, 기업내에서의 조직 분화와 그에 따른 기능(관리, 통제, 생산, 판매기능)의 차이에 따라 정보집약적인 전략적 서비스에서부터 생산과 직접 연관된 서비스 등등 다양한 양과 질의 서비스 수요가 발생된다. 과거에는 점차 복잡해지는 기업내부조직과 경영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기능은 주로 조직내에서 해결하여 왔으나, 치열해지는 경쟁속에서 기업들이 유연적인 생산과 경영조직을 추구하면서 핵심적인 기능이나 전략적인 기능은 내부에서 해결하는 반면에 생산에 부차적인 전문 서비스 기능은 외부화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Coffey & Baily, 1992).

이와 같이 기업이 서비스를 외부화하는 첫번째 이유는 외부환경의 변화때문이다. 즉 심화되어가는 시장경쟁, 급변하는 수요, 시장의 불예측성 증가,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확산, 국제간 교역 증가 등등 기업의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두번째 이유는 주로 기업내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기업이 비대화, 복잡화되고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업내부 전략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기업이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외부화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외부로 전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연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용이하게 되었다. 일례로 마케팅, 광고, 경영컨설팅 등의 정보집약적 전문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표 9. 서비스업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성장

업 종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평균증가율(%)		1995년 사업체수(개)	연평균증가율(%)		1995년 종사자수(명)
	1981-86	1986-95		1981-86	1986-95	
생산자서비스업	9.8	9.3	180,008	8.9	10.3	1,480,367
유통서비스업	8.9	15.5	375,308	8.7	7.2	1,709,358
소비자서비스업	5.7	4.2	1,812,979	7.0	4.8	5,070,370
전체서비스업	6.1	5.8	2,368,195	7.5	6.1	8,260,095

주: 업종분류는 표8과 같음

자료: 통계청, 1995,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전국편); 경제기획원, 1981,1986, 1991,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또한 법률, 회계, 경영상담, 정보통신 등의 전문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국적기업은 범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의 어느 지역에도 전문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경제의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고객의 진출에 따라 외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이후 독자적인 망 구축을 통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기호의 변화와 제품수명 단축으로 인하여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지식집약적인 생산으로 변화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혁신적인 제품개발과 효율적 수요관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고차 서비스(과학적 경영기법, 효과적 광고,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생산관리 등등) 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상품경쟁의 요소가 상품가격보다는 디자인이나 품질과 같은 비가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제품기획, 설계, 생산 등 제조활동 전반에 걸쳐 정보, 지식, 서비스 등의 투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계시장의 개방화와 경쟁의 심화, 이에 따른 변화의 가속화는 기업들에게 제품 및 공정혁신의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연구개발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연계를 강화시키고 생산시스템의 부가가치연계를 효율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우 빈번한 국가내부의 규제나 국제적 규약의 신설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탐색하고 보다 능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문 서비스업체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현대산업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상호의존도가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생산자서비스업의 발달이 없이는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저해되며, 특히 연구개발, 금융, 보험, 지식정보, 사업서비스업이 없이는 현대산업의 팽창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Daniels, 1985; Gillespie & Green, 1987; Kirn, 1987; Price & Blair, 1989). 한편, 기업의 생산 및 조직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업은 더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기능을 창출하면서 다변화되면서 규모경제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기업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자서비스업의 규모경제화에 따라 보다 싼 값으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는 생산자서비스업은 사업체수와 종업원 규모로 볼 때 두 그룹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체 비중으로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서비스업종의 비중이 총사업체의 81%를 차지하는 반면에 금융, 보험업의 비중은 불과 19%에 미치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의 점유비중을 보면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업종의 비중은 52%에 정도이며 금융, 보험업의 비중이 48%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업종은 주로 영세업체들이 많다고 볼 수 있고 금융과 보험업종은 상대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 생산자서비스업의 공간적 분포

우리나라의 생산자서비스업은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의 생산자서비스업 점유율은 41%이며, 수도권에는 56%에 달하는 종사자가 집중되어있다. 특히 정보처리업의 경우 전국의 80.6%의 종사자가 서울에 입지하고 있으며, 금융

표 10. 생산자서비스업의 공간적 분포, 1995년

(단위: %, 명)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서비스	부동산	기계임대	정보처리	연구개발	기타사업서비스	합계(점유율)
수도권	**48.3**	**44.9**	**82.6**	**63.7**	53.2	**86.1**	**53.1**	**63.0**	**833,912 (56.3)**
서울	33.6	30.6	75.4	40.8	32.6	80.6	21.2	50.0	602,404 (40.7)
인천	3.6	4.0	1.9	5.2	5.2	2.1	2.6	3.0	55,440 (3.7)
경기	11.1	10.3	5.3	17.7	15.4	3.4	29.4	10.1	176,068 (11.9)
부산권	**15.4**	**18.6**	**6.3**	**12.6**	**14.6**	**4.4**	**4.0**	**13.6**	**211,988 (14.3)**
부산	7.6	11.2	4.0	7.9	7.6	2.9	1.4	8.4	123,443 (8.3)
경남	7.8	7.4	2.3	4.6	7.0	1.5	2.6	5.2	88,545 (6.0)
대구권	**10.7**	**9.7**	**4.1**	**7.7**	**9.3**	**3.8**	**2.4**	**8.1**	**127,324 (8.6)**
대구	5.2	5.8	3.0	5.3	5.4	1.9	0.3	4.5	72,251 (4.9)
경북	5.5	3.9	1.1	2.4	3.9	1.8	2.0	3.7	55,073 (3.7)
광주권	**11.0**	**12.0**	**3.5**	**6.1**	**9.3**	**2.5**	**2.6**	**6.7**	**126,874 (8.6)**
광주	2.6	3.9	1.7	2.3	2.7	1.3	2.0	2.4	40,764 (2.8)
전북	4.0	4.4	1.2	2.0	3.4	0.4	0.4	1.7	42,381 (2.9)
전남	4.4	3.7	0.6	1.8	3.2	0.8	0.1	2.6	43,729 (3.0)
대전권	**10.3**	**9.7**	**2.7**	**8.6**	8.2	**3.0**	**36.7**	**6.0**	**130,909 (8.8)**
대전	2.6	4.4	1.3	4.8	2.7	2.3	36.0	6.0	61,832 (4.2)
충북	3.1	2.7	0.8	1.7	2.5	0.5	0.3	1.7	31,957 (2.2)
충남	4.6	2.6	0.5	2.1	3.0	0.2	0.4	1.7	37,120 (2.5)
강원	2.9	3.3	0.5	1.5	3.8	0.2	0.6	1.8	34,186 (2.3)
제주	1.5	1.9	0.2	0.4	1.5	0.2	0.6	0.8	16,476 (1.1)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 전국편, 1995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도 전국의 75%에 달하는 종업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1 참조).

반면에 금융, 보험, 기계임대업의 경우 서울의 점유율은 30%정도를 상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서울의 집중도가 낮은 편이다. 한편, 연구개발업의 경우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의 조성으로 인해 대전의 점유율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자서비스업의 분포패턴을 통해서 생산자서비스업도 상당히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주며, 따라서 생산자서비스업이 성장하면서 업종에 따라서 공간적 집중화가 이루어지는 업종도 있는 반면에 공간적 분산화가 진전되는 업종도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1986년의 경우 생산자서비스업의 수도권으로의 집중도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업은 58.4%, 보험업은 48.6%, 부동산업은 73.3%, 그리고 사업서비스업은 62.1%였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금융업과 부동산업은 상당히 분산화가 이루어진 반면에 정보처리 및 기타 사업서비스업은 집중화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금융업과 보험업의 경우 분산화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소비자와의 대면접촉을 필요로 하고 또한 지역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에 지점들을 설립하

여 가능한한 수요시장에 가까이 입지하려는 경향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급성장한 사업서비스업의 경우도 업종에 따라서 공간적 집중화와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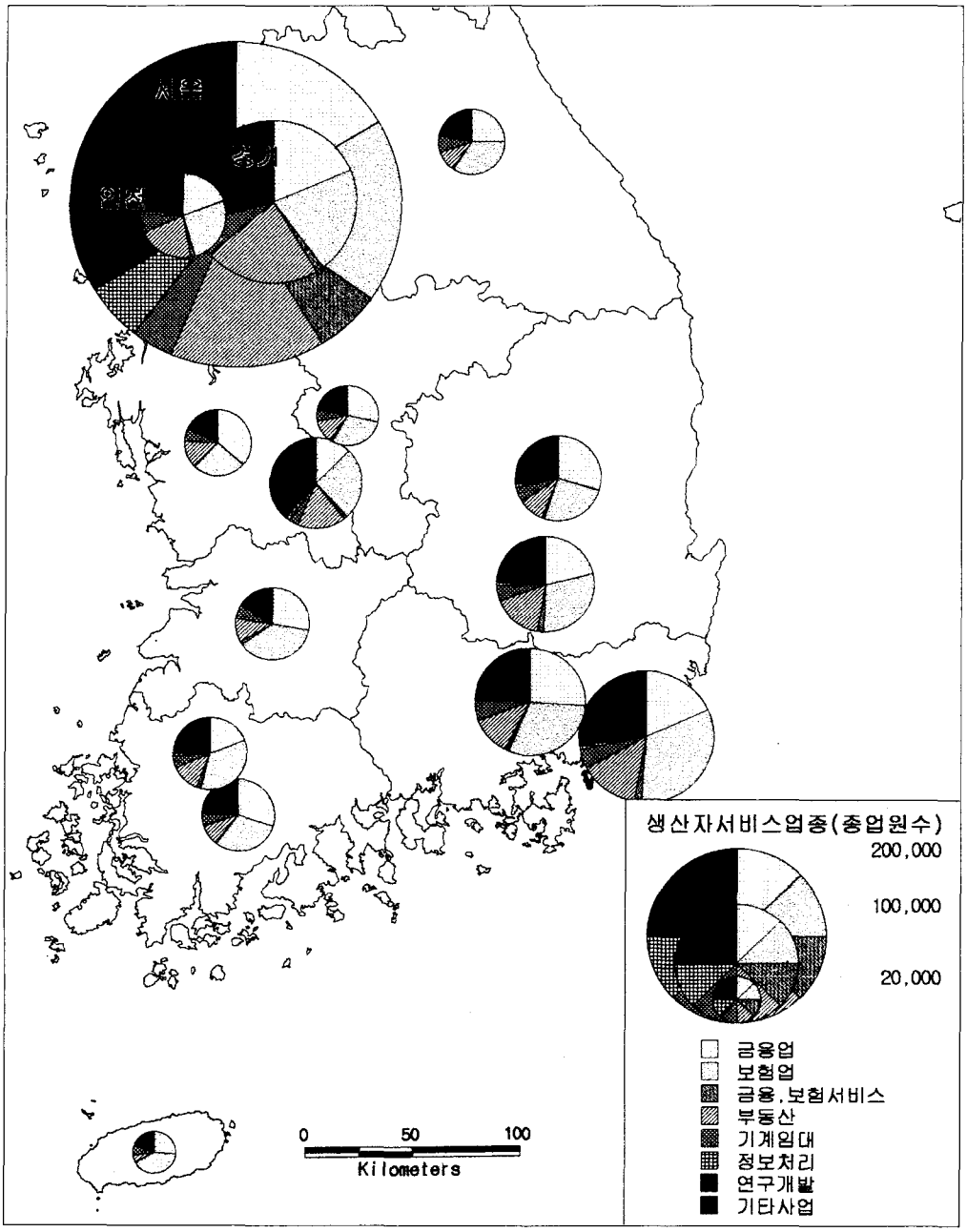

그림 1. 생산자서비스업의 공간적 분포, 1995

표 11. 사업서비스업과 정보처리업의 설립시기별 지역적 분포

	사업서비스업 전체[1] (단위:%)					정보처리업[2] (단위:개)				
	1970년 이전	1970-79년	1980-86년	1987-95년	계	1970년 이전	1970-79년	1980-89년	1990-96년	계
서울	26.1	34.9	43.0	30.2	32.0	2	17	71	90	180
부산	8.9	12.5	10.6	8.2	8.7	0	0	2	4	6
대구	3.4	5.3	5.6	6.0	5.9	0	0	1	4	5
인천	2.5	3.0	3.5	3.0	4.7	0	0	0	1	1
광주	3.0	3.3	3.1	5.1	3.1	0	0	1	1	2
대전	5.9	2.2	2.3	3.3	3.2	0	0	1	2	3
경기	8.5	9.0	10.6	15.3	14.4	0	2	1	3	6
강원	4.6	2.9	2.3	2.3	3.0	0	0	0	0	0
충북	3.9	2.6	2.3	2.7	2.6	0	0	0	1	1
충남	2.7	3.6	2.3	3.2	3.0	0	0	0	0	0
전북	6.1	4.8	3.3	3.5	3.5	0	0	1	1	2
전남	7.5	4.4	2.6	3.2	3.2	0	0	0	0	0
경북	8.5	4.7	3.1	4.4	4.3	0	0	0	0	0
경남	7.5	6.0	4.7	7.7	7.2	0	0	2	2	4
제주	0.8	0.7	0.8	1.2	1.1	0	0	0	0	0
전국	**963**	**3,437**	**12,774**	**78,841**	**96,015**	**2**	**19**	**80**	**109**	**210**

주: 1) 1986년 까지의 사업서비스업은SIC 84(용역, 기계 및 장비임대업);
1995년 사업서비스업에는 SIC71,72,73,74(기계임대, 정보처리, 연구개발, 기타 사업서비스)
2) 전국기업체총람에 수록된 정보처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출처: 통계청, 총사업체조사보고서, 1981, 1986,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 1995;
상공부, 전국기업체총람, 1997.

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86년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은 전체 생산자서비스업의 21.3%를 차지하였으나 1995년에는 그 비중이 53.4%를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성장한 사업서비스업의 경우도 서울로 집중화하는 업종과 분산화되어가는 업종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고 있다. 설립연도에 따른 전체 사업서비스업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창업되는 사업체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다소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체의 85%가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정보처리업의 경우 1980년대 후반이후에도 창업하는 사업체는 주로 서울에 입지하고 있다(표 11 참조). 이와 같이 지식집약적이고 정보집약적인 정보처리업의 경우 서울로 더욱 집중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서울이라는 지역의 갖고 있는 경제의 우위성과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집적경제의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교환의 신속성과 정보의 존재, 낮은 컴뮤니케이션 비용을 누릴 수 있으며, 정보처리 서비스업의 경우 보다 국제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2) 생산자서비스업의 공간적 분업화

기업조직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간적 분업화에 관한 연구는 제조업의 경우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공간적 분업화란 기업의 운영단위들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조직과 현대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촉진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기업조직에 따른 공간적 분업화에 관한 분석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Riddle(1986)의 주장에 따르면 서비스기업도 수명주기이론(service firm life cycle) 에 의해 기업성장과정에 따른 기업조직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서비스 생산의 초기 단계에서는 소규모의 영세 기업으로 설립되며 주로 가족 노동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노동집약적이며 자본장비율이 상당히 낮고 주로 인력중심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상권의 범위를 넓히면서 성장해 나가는 두번째 단계에 접어들면 적절한 시기에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성장의 필수요건으로 부각된다. 이 단계에서는 자본집약화가 이루어지는데, 일례로 컴퓨터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기업이 성장해 나가려고 할 때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같은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거나 단일한 서비스를 여러 지역의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시키는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때 고객에게 보다 가까이 입지함으로써 고객 확보와 고객에게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되므로 지점과 점포망을 여러 지역으로 확산시키게 된다. 이는 수요자입지(in-market location)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기술혁신, 특히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본점과 지점간에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지점화함으로써 서비스업체의 규모경제화가 이루어지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기업의 수명주기모델의 마지막 단계는 법인기업체(a corporate entrepreneur)화 되는 단계이다. 이는 서비스업체 들간에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 기업들은 전문적인 경영자를 통해 보다 위험부담율을 낮추면서 기업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루려고 시도하게 된다. 법인기업체화되는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기업의 수익자원과 전문화된 경영구조를 기업가의 추진력과 연계시킴으로써 신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거나 체계를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

Riddle은 이러한 서비스기업의 수명주기이론에 따라 공간적 분업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서비스 산업도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생산비절감, 새로운 시장개척, 다양화, 전문화 추세에 따라 기업조직이 이루어지면서 다지점화되는 공간적 분업화가 나타나게 됨을 시사하였다. 특히 정보기술산업의 발달이 공간적 분업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자서비스업에서의 공간적 분업화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편이다. 1995년 생산자서비스업체중에서 지점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기업의 비중은 전체의 14.5%에 불과하며 나머지 84.5%는 단독업체이다. 그러나 생산자서비스업종들 사이에도 공간적 분업화현상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 보험업의 경우 1986년 단독업체의 비중이 43.3%를 차지하였으

나 1995년에 와서는 29%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금융, 보험업체의 67%가 지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보험업의 경우 총사업체의 84%가 지점의 형태이다. 반면에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단독업체의 비중은 1986년에 97.2%이던 것이 1995년에 95%를 나타내어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업서비스업종 가운데 정보처리업과 연구개발업은 공간적 분업화가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으로 전체 사업체중 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에 이르고 있다(그림 2 참조).

한편, 종업원 규모에 따른 특성을 비교해보면 단독업체의 비중이 95%를 차지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업체의 80%가 1~4명의 종업원을 갖고 있는 매우 영세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금융, 보험업의 경우 1~4명 규모의 업체의 비율은 25%정도이며, 20-49명 규모를 가진 업체의 비중도 26%나 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본점과 지점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적분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림 3 참조).

공간적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의사결정과 통제기능 등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본사의 입지는 대도시를 지향하여 입지하려는 데 비해 지점의 경우 수요자를 지향하여 지방으로 분산화되어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산자서비스업종별 본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업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업의 경우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의 본점들이 지방에 많이 신설되어 서울이 점유하는 본점의 비중은 불과 21%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금융, 보험 관련서비스업의 경우 본사의 70%가 서울에 입지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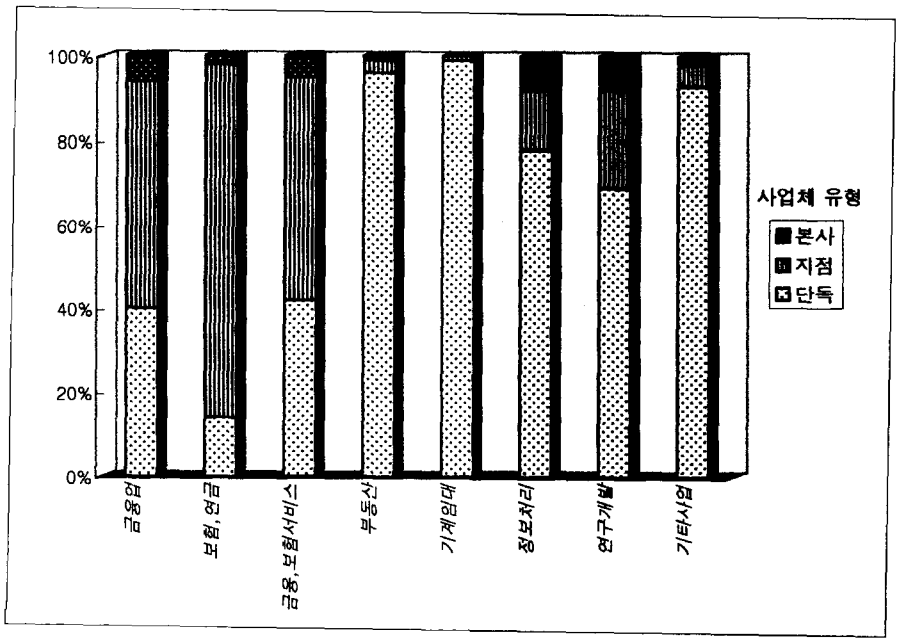

그림 2. 생산자서비스업의 사업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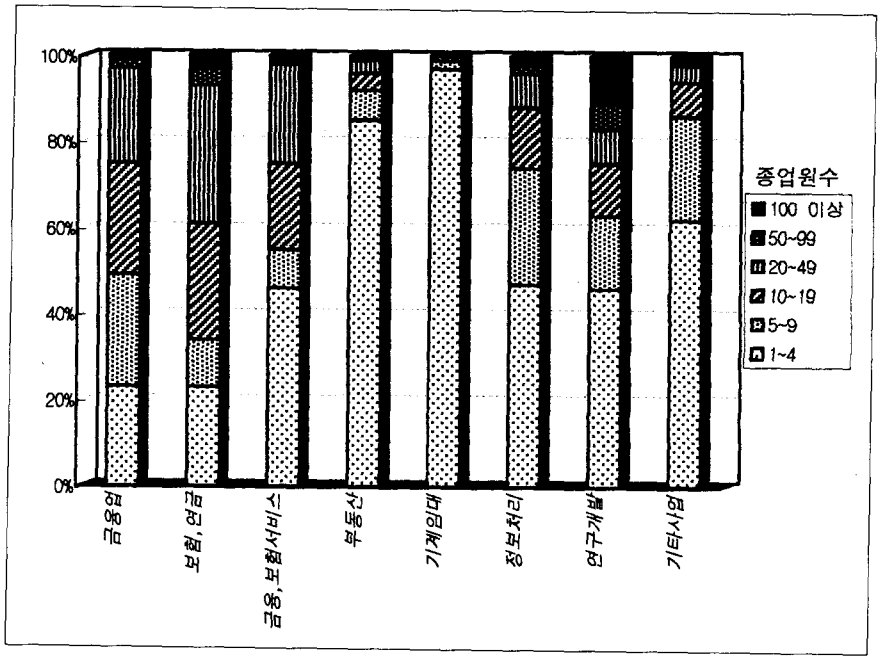

그림 3. 생산자서비스업의 종업원 규모

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 업종간의 기능이 상이함을 의미하며 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풍부한 정보환경속에서 대면접촉이 용이한 서울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간적 분산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의 경우 본사의 절반이상이 서울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처리업의 경우 230개 본사 가운데 88%에 달하는 203개의 업체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어 정보처리업의 경우 서울로의 입지지향성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보처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으며, 가장 풍부한 정보환경을 갖고 있으며, 폭넓고 다양한 잠재적인 접촉자들을 효율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본점들이 서울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기계임대업의 경우 서울의 본사 비율은 40%정도로 다소 낮은 편으로 이는 분산되어 있는 수요자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엿볼 수 있다. (표 12 참조)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운영단위를 갖는 경우 지역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본사와 지점, 영업소의 소재지가 수록되어 있는 전국기업체총람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총람에는 상주종업원의 규모가 10인 이상의 업체들에 대해서만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다소 한정적이다. 그러나 10인 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업체의 경우 공간적 분업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공간적 분업화에 따른 지역간의 연계성을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생산자서비스업종들 가운데 공간적 분업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금융업과 보험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업체중 운영단위가 공간적으로 분리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여 본점과 지점간의 지역적 연계성

표 12. 생산자서비스업종별 본사의 지역적 분포, 1995년

(단위: %)

구분	금융업	보험업	금융,보험 서비스	부동산	기계임대	정보처리	연구개발	기타사업 서비스업
서울	**21.3**	**43.1**	**70.0**	**51.1**	**36.6**	**88.3**	**59.1**	**61.3**
부산	7.4	10.1	6.0	6.2	6.3	0.9	3.0	8.3
대구	9.5	6.0	2.0	4.7	3.6	1.7	1.5	3.0
인천	5.0	2.2	1.0	6.1	6.3	0.4	1.5	2.6
광주	3.1	1.9	1.0	1.6	4.5	1.3	3.0	3.0
대전	3.7	1.9	1.0	2.8	1.8	3.0	13.6	2.5
경기	9.7	16.9	8.0	11.1	8.1	0.9	16.7	7.9
강원	3.2	2.6	0.0	1.4	5.4	0.0	0.0	1.2
충북	3.8	3.0	4.0	1.7	1.8	0.0	0.0	1.1
충남	6.4	1.9	1.0	2.4	2.7	0.0	0.0	1.2
전북	5.4	1.1	3.0	2.1	6.3	0.4	0.0	1.2
전남	3.5	1.1	1.0	2.6	0.9	0.4	0.0	0.7
경북	7.3	2.2	0.0	1.7	4.5	0.9	0.0	1.6
경남	8.7	4.1	2.0	3.3	1.8	1.7	1.5	3.6
제주	1.9	1.9	0.0	1.2	6.3	0.0	0.0	0.7
전국	1134 (100%)	267 (100%)	100 (100%)	577 (100%)	111 (100%)	230 (100%)	66 (100%)	1214 (100%)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전국편, 1995년

을 분석하였다(표 13 참조). 먼저 금융업의 경우 분리된 지점을 갖는 본점중 80.2%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산과 대구에 4.3%, 3.5%가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자율화 이후 지방에 금융점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지만 본점의 설립보다는 지점의 수가 늘어났음을 엿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대폭적으로 금융기관이 늘어났지만 공간적 분업화를 통한 지점 신설이 주로 이루어졌을 뿐 여전히 서울은 전국적으로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로 과도하게 본점이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지점의 분포를 보면 서울시의 비중이 다소 높지만 비교적 대도시나 다른 지역에도 분산되어 있는 편이다. 본점이 서울에 있는 경우 그 지점들은 다른 지방에 비교적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본점이 지방대도시(부산, 대구, 광주 등)에 있는 경우 그 지점은 주로 대도시 주변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업의 경우 생산자서비스업종 가운데 가장 공간적 분산화가 많이 이루어진 업종이다. 분리된 지점을 갖고 있는 본사의 분포를 보면 서울의 점유율이 83%에 이르고 있어서 보험업의 대부분의 본사는 서울에 밀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에 4.1%에 입지하고 있을 뿐 다른 지방의 본사 점유율은 1~2% 정도이다. 보험업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국민소득의 향상, 핵가족화, 자동차 소유주의 증가, 근로자들의 복지후생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수요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늘어났다 . 반면에 보험업계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층 확보를 위한 고객지향적 입지전략을 수립하면서 지방으로의 다지점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점의 분포를 보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편으로 전체 지점의 31.4%가 서울에 입지하여 있고 부산에 10.5%, 경기에 8.4%, 대구에 7.3% 순으로 입지하여 있다.

그러나 금융업이나 보험업의 경우 공간적 분업화

표 13. 금융, 보험업의 본점과 분리된 지점의 지역적 연계

본점\지점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충북	충남	강원	제주	해외	계	비율 (%)
서	금	1966	157	578	318	207	208	236	101	118	120	102	83	105	111	38	153	4631	80.2
울	보	456	65	121	143	76	104	90	65	55.	43	56	33	26	51	27	-	1411	83.0
인	금	7	44	84														135	2.3
천	보	11	2	3	2	3	3	1	2	1	1	1	1		1	1		33	1.9
경	금	6	3	9														18	0.3
기	보	13	1	2	3	1	1	2	1	1	1	1	1		1			29	1.7
부	금	27	7	21	140	24	5	7	2	2	2	2	1	2	3	0	2	247	4.3
산	보	18	3	6	12	4	4	3	3	4	3	3	2	1	2	2		70	4.1
경	금	7			5	78	1	1										92	1.6
남	보	3		1	5	9	2	2	1			1						24	1.4
대	금	20	3	9	3	5	117	42				2					3	204	3.5
구	보	6	1	1	3	1	7	4	1			1	1					26	1.5
경	금	2						1										3	0.05
북	보																		
광	금	7	1	1	2		1		55	2	42	1					1	113	2.0
주	보	5	2	2	2		1		5	2	3	1				1		24	1.4
전	금	6	1							1	52							60	1.0
북	보	7	2	3	2			1		1	6	2	1			1		26	1.5
전	금																	0	0.0
남	보																		
대	금	6	1									27	1	33				68	1.2
전	보	5	1	2	2	2	1		1	2	1	3	1	3				24	1.4
충	금	4										1	36	1				42	0.7
북	보	5		1	2		1		1			2	4	1				17	1.0
충	금	4											1				1	1	0.02
남	보	5					1												
강	금	5	2	4											45			56	1.0
원	보	5	1	1	2			2				1	1		3			16	0.9
제	금	4			2					1							27	34	0.6
주	보																		
해	금	58	1		10	1												70	1.2
외	보																		
계	금	2155	220	706	480	314	333	287	160	174	164	136	121	141	159	65	159	5774	
	보	534	78	143	178	96	124	105	81	70	55	71	44	31	58	32		1700	
비	금	370.	3.8	12.2	8.3	5.4	5.8	4.9	2.8	3.0	2.8	2.4	2.1	2.4	5.8	1.1	2.8	2.8	100
율	보	31.4	4.6	8.4	10.5	5.6	7.3	6.2	4.8	4.1	3.2	4.2	2.6	1.8	3.4	1.9			100

주: 금: 금융업, 보: 보험업
자료: 상공부, 전국기업체총람, 1997년

현상이 표면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주로 소비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차원적인 기능을 분담하는 분업화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들은 서울에 입지한 본점들 뿐만 아니라 지방에 본점을 두고 있는 서울의 지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공간적 분업화에서 나타나는 현상과는 본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서비스 경제화 추세가 진전되면서 공간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산업구조와 무역구조의 변화를 통해 서비스 경제화가 최근에 들어와 상당히 급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자체가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서비스산업 내에서도 성장율의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년간 가장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업종은 생산활동과 연계가 깊은 생산자서비스업으로, 이 업종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으로의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서비스업종 중에서도 금융, 보험업은 지방으로의 분산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공간적 분업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업과 기계임대업의 경우도 상당히 지방으로의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처리업 및 기타 고차적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 업종의 전국에 대한 점유율은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의 점유율 수준보다 훨씬 더 높으며, 핵심-주변 지역간의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주변지역에 고차적 생산자서비스업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그 지역의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제조업의 경우 기업조직화에 따른 공간적 분업화로 인해 주변지역에는 주로 분공장이 많이 입지해 있다. 따라서,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본사기능이 주로 집적되어 있는 핵심지역은 기술, 정보, 지식 집약적인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생산자서비스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본사가 입지하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행정업무, 회계업무, 기술자문, 시장 전략 등등)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입지하려는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방으로 기업의 본사들이 입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 이는 지방에 입지하는 경우 기업경영과 연구개발, 기술혁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없으며, 또한 고급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서비스업은 생산요소에 투입되어 부가생산성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출기반산업으로서 서비스 교역을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서비스 산업의 전문화와 교역화가 진전되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체들은 다른 지역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반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정지역내에서의 다양한 전문서비스가 존재할수록 기업들의 서비스 외부의존율이 높게 나타나며, 외부 전문서비스의 이용패턴을 보면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서비스업체로부터 다양한 사업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자서비스업의 발달은 지역내 수요기업의 경쟁력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지역내에서의 생산자서비스업은 고용증가와 양질의 노동인력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경제의 다양화에 기여하면서 건전한 산업구조를 유도한다. 또한 생산자서비스업의 성장은 지역내 산업발달정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어 지역의 소득증진에 기여하며, 중간재로 활용되어 타산업의 경쟁력을 부가하며 간접적인 수출소득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생산자서비스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 재화의 생산부문과 같이 다양한 산업 연계와 지역연계를 가지며 지역경제에서 부의 생산기반으로 성장해가고 있다(Marshall & Wood, 1992; O'Farrel & Hitchen, 1990)

최근에 들어와 도시경제에서 생산자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세계 및 국가도시체계에서 도시의 위상은 그 도시에서의 생산자서비스 발달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으며(Daniells, 1991), 많은 도시들이 생산자서비스 기능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구축되고 있는 세계도시들에는 많은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국제 금융기구나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집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를 생산하고 수출을 주도하는 법률, 보험, 회계, 엔지니어링, 광고 등의 지식서비스업종들의 수도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세계도시들은 고도의 정보통신 하부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혁신과 정보를 생산, 확산 전달하는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세계적 차원에서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제활동을 조정, 관리, 통제하고 더 나아가 정보의 흡수와 보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서비스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Sassen, 199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패턴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별적인 서비스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입지는 공간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차적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 핵심-주변의 이중적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누적적 순환과정을 통해 공간구조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서울을 세계도시들과 경쟁력있는 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고차적 생산자서비스업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서울과 다른 지역과의 성장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서울을 경쟁력있는 도시로 육성시키면서도 다른 주변지역과의 성장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정보, 통신의 하부구조를 확충하고 다양한 생산자서비스업체를 유치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식, 정보가 중심이 되는 정보화사회로,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의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의 경제성장과 생산자서비스업 부문과의 관계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들이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Allen, J., 1988, "Service industries: Uneven development and uneven knowledge," *Area*, 20, pp. 15-22.

Allen, J., 1992, "Services and the UK space economy: Regionalization and economic dislocatio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7, pp. 292-305.

Baumol, W., 1967,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57, pp. 415-426.

Bell, D.,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London: Heinemann.

Bhagwati, J.N., 1984, "Why are services cheaper in the poor countries?," *Economic Journal*, 94, pp. 279-286.

Blackaby, F. (ed.), 1979, *De-industrialization*, London: Heinemann.

Clark, C.A., 940, *The Condition of Economic Progress*, London: Macmillan.

Coffey, W.J. and Bailly, A.S., 1992, "Producer services and systems of flexible production," *Urban Studies*, 29, pp. 857-868.

Daniels, P.W. , 1985, *Service Industries: A Geographical Appraisal*, New York: Methuen.

Daniels, P.W.(ed.), 1991, *Services and Metropolitan Develop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Routledge: Chapman and Hall.

Daniels, P.W., 1996, "The lead role of developed economies," in Daniels, P.W. and Lever, W.F.(eds.), *The Global Economy in Transition*, Essex: Longman.

Fisher, A.G.B., 1935, *The Clash of Progress and Security*, London: Macmillan.

Fuchs, V., 1968, *The Service Econom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Gillespie, A.E. and Green, A.E., 1987, "The changing geography of producer service employment in britain," *Regional Studies*, 21, pp. 397-411.

Healy, M.J. and Ilbery, B.W., 1990, *Location and Change: Perspective on Economic Ge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epworth, M., 1989, *Geography of Information Economy*, London: Belhaven Press.

Kirn, T.J., 1987, "Growth and change in the service economies: a geographical perspectiv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7, pp. 353-372.

Kravis, I.B., Heston, A.H. and Summers, R, 1983, "The share of services in economic growth," in Adams, F.G. and Hickman, B.G.(eds.), *Global Econometrics*, Cambridge: MIT Press, pp. 188-218.

Mandel, E., 1975, *Late Capitalism*, London: New Left Books.

Marshall, J.N. and Wood, P.A., 1992, "The role of services in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Recent debates and new direc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4, pp. 1255-1270.

Marshall, J.N., 1994, : "Business reorg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services in metropolitan areas," *The Geographical Journal*, 60(1), pp. 41-19.

Ochel, W. and Wegner, M., 1987, *Service Economies in Europe: Opportunities for Growth*, London: Pinter Publishers.
O'Conner, K., 1987, "The location of services involved with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Planning A*, 19, pp. 687-700.

O'Farrel, P.N. and Hitchen, D.M., 1990, "Producer services and regional development: Key conceptual issues of taxanomy and quality of measurement," *Regional Studies*, 24, pp. 163-171.

Porat, M., 1977, *The Information Economy: Definition and Measurement*, Washington, DC: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US Department of Commerce.

Price, D.G. and Blair, A.M., 1989, *The Changing Geography of the Service Sector*, London: Belhaven Press.

Riddle, D.I., 1986, *Service-led Growth*, New York: Praeger.

Riddle, D.I., 1987, "The role of service sector in economic developmen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Development Category," in Giarini, O.(ed.), *The Emerging Service Economy*, New York: Pergamon Press.

Sassen, S.,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ayer, A., 1985, "Industry and space: a sympathetic critique of radical research,"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 pp. 3-29.

Sayer, A. and Walker, R., 1992, *The New Social Economy: Reworking the Division of Labour*, Oxford: Blackwell.

Urry, J., 1990, "Work, Production and Social Relation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4, pp. 271-280.

Winckler, V., 1990, "Restructuring the civil service: Reorganization and relo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4, pp. 135-157.

Abstract

Service Economies and the Spatial Transformation

Hee-Yeon Lee*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economies and their impacts on the spatial transformation of Korea during the last 15 years. This study reviews the different perspectives for the tertiarization process. It focuses on the spatial variation in the growth and location of producer service industries.

Based on the analyses of industrial and occupational compositions, services, particularly producer services, have played a major role in creating new job opportunities since the late 1980s. The ratio of services to merchandise trade is approximately 1:4, but service trades have increased since the early 1990s.

Producer service activities have grown very rapidly, and the information processing service has been over-concentrated in Seoul. Further headquarters of bank and insurance services are overwhelmingly concentrated into Seoul. The firms whose headquarters are located in Seoul have linkage pattern on a nationwide scale. The pattern of employment growth in producer services shows a clear core-periphery disparity.

In the light of the observed pattern of regional differentiation in producer service employment, some wider implications of the distribution of producer service activities for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are considered.

Key words : service economies, spatial transformation, producer services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Kuk University.